태국軍 1천296명 넋 기려

제51주기 참전 16개국 UN참전태국군전몰용사 합동추모 · 위령제

바신 티라 베챠얀 주한 태국대사가 지난 8일 타일랜드 참전 기념비에서 UN참전태국군전몰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분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탄용사 호국정신 선양회(회장 유법안)가 주최하고 UN참전 16개국 위패봉안위원회가 주관한 제51주기 참전 16개국 UN참전태국군전몰용사합동추모/위령제가 지난 7일 타일랜드 참전 기념비가 위치한 영북면 문암리 산 24-1번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추모/위령제에는 바신 티라 베챠얀 주한 태국대사와 태국 육사생도, 6·25참전용사, 재향군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6·25 당시 전몰한 태국군 1천296명의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위령제는 ▷1부 행사로 천불선원의 범패와 세심선원장 범예스님의 호국영령 천도염불이 어우러진 태국군 전몰장병 호국 영령 천도법회 ▷2부 행사로 ▶내빈 소개 및 전사보고 ▶헌화 및 분향 ▶김영후 8사단장, 바신 티라 베챠얀 주한 태국대사, 김동석 HID대장(육사8기), 김정남 장군(육사8기·전 육사교장) 등의 추도사 ▶이규영 장군(육사8기)의 추도시 ▶유공단체표창 등이 이어졌다.

한편 태국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4천여명의 지상군과 1개 대대의 해군, 1개 수송편대의 공군을 지원했으며, 전쟁중 전사 129명 부상 1천139명의 손실을 입었다.

현재 타일랜드 참전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부터 1972년 6월 철수시까지 영북면 문암리에 주둔하던 태국군의 전사를 기리기 위해 1974년 10월 1일 건립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 육탄용사 호국정신 선양회 유법안 회장은 "6·25 전쟁당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태국군의 값진 희생이 점점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방국인 태국군의 넋을 기리며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이니 만큼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이가팔리 S실업의 경우 고압 변압기에서부터 공장내부 전기박스까지 45m의 전선 8가닥(싯가 350만원)을 탈취했다. 전선도둑들은 고압선 변압기 슈즈를 차단하고 공장내부 전기박스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압선 절도 간 큰 도둑 활개

경찰, 전기업종 종사자, 고물상 대상 수사

최근 포천지역에 잇따라 전선을 훔쳐 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영중면 양문리와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압선을 절단하거나 혹은 적재된 전선 코일을 훔쳐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전선코일을 몰래 훔쳐 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가팔리 S실업의 경우 고압 변압기에서부터 공장내부 전기박스까지 45m의 전선 8가닥(싯가 350만원)을 탈취했다. 전선도둑들은 고압선 변압기 슈즈를 차단하고 공장내부 전기박스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압선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전기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기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선 전문 털이범이거나 혹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승완 기자 forme64@paran.com

우리동네를 말한다 ㉔

창수면 오가2리 이장 이호윤

게이트볼장을 마을의 종합체육시설로 활용

이 호 윤
창수면 오가2리 이장

포천시 창수면 오가2리는 일반국도 37호선에서 관인면 중리로 넘어가는 고개 초입에 위치한 평범한 마을이다.

오가2리는 옛지명으로 '가노리'라 불렸으며 마을사람들간에는 아랫말, 윗말로 불리던 것이 현재의 지명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한다.

이 마을은 75세대 12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 중 45세대가 원주민으로 구성돼 있다.

오가2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는 10여 가구뿐, 주민 대다수가 회사원이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1987년부터 88년까지 이장을 맡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이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호윤(61·사진)으로부터 오가2리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이호윤 이장은 현재 포천시리·통장연합회 부회장을 4년째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오가2리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창수면의 인재들이 배출된 마을이다"고 먼저 소개하는 이 이장.

"포천시의회 의원을 연임하고 있는 이병욱 의원과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창수면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김용성씨 등이 오가2리 출신이다"며 "비록 마을은 작지만 공교롭게도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가2리에 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현재까지는 포천에서 가장 좋은 게이트볼장을 갖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마을 소개를 시작했다.

이 마을의 게이트볼장은 오가2리 보건지소 뒤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총 2개의 면으로 구성돼 있다.

"게이트볼장의 부지는 마을공동부지가 아닌 개인의 것으로 땅 주인들의 양해로 영구 임대를 받아 만들어지게 되었다"며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임대를 준 토지 소유주에게 감사하다"는 이 이장.

최근 오가2리 게이트볼장에는 포천시 게이트볼팀들이 찾아 게이트볼장을 구경하고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 이장은 "관내 지난달 26일 관내 10개팀을 초청해 대회를 치렀다"며 "대회에 참가한 관내 노인들의 칭찬이 대단했다"고 밝혔다.

이 이장은 "젊은 층은 대부분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데 마을에는 식품공장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공장입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가2리 역시 마을 주민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30여명 정도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정 개설 등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한으로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는 이 이장.

"지금의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 예산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안고 있으며 낡아 있다"며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시설을 노인정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을의 안건이 있을때는 마을회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에 별도의 여가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게이트볼장과 연계해 윗말까지 가로등 시설을 완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의 종합생활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계획이다"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와 조명시설을 설치해 전천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오가2리는 마을청년회를 조직, 주민들의 단합과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이장은 "30세부터 55세까지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 올 1월 청년회를 조직했다"며 "아직 활동은 미약하지만 마을 대소사 등의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읍·면·동장 ⑥ 이동면 양윤삼 면장

民주도의 면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 건의사항 公文化 민원발생 사전예방

양 윤 삼
이동면 면장

이동면(면장 양윤삼)은 경기도 최북단으로 강원도와 접경지역으로 국도47호선 포천의 마지막에 위치 이동막걸리와 이동갈비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안보적으로 요충지로 1개의 군단 1개의 사단, 2개 여단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근교 1일 관광지인 백운계곡 관광지가 있고, 유명한 막걸리 공장은 2개소이고 이동갈비 업소는 110여 개 업소가 위치해 있다.

이동면의 2004년 12월 기준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20개리(법정4개리), 75개반, 23개 자연부락 ▶2천781가구(농가 632, 비농가 2천149) ▶인구 7천 11명(남 3천631명, 여 3천380명) ▶면적 113.71㎢(농경지 7.2㎢, 임야 95.6㎢, 기타 10.2㎢) ▶학교 이동·노곡·도평초, 이동중 ▶기업체는 14개업체 265명종사(식품제조 4, 생수제조 4, 탁주제조 2, 기타 4) ▶자동차 2천312대(3명당 1대-승용차 1천410대, 승합차 276대, 화물 622대, 기타 4대) ▶의료시설 5개소(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 1, 의원 1, 약방 2) ▶저소득층 현황 180세대 311명 ▶종교시설 천주교 1개소, 기독교 11개소, 불교 6개소, 무속인 1개소 ▶면직원 14명(5급 1, 6급 3, 7급 4, 8급 1, 9급 2, 기능 2, 미화원 1)이다.

1973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 일동면장을 거쳐 지난해 이동면에 부임한 양윤삼(59·사진) 면장은 민(民)주도의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면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윤삼 면장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 중 동절기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1월 7일부터 29일까지 이동면 도평삼거리 백운계곡 입구에서 실시한 도리돌 동장군 축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양 면장은 "처음 사업을 계획 할 때는 면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준비되었지만 주민들의 자생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주도로 추진을 당부했다"며 "관에서는 타 지역의 성공사례 등 정보와 평가방법 등의 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서 더욱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도리돌 동장군 축제를 분석하고 재평가해 내년의 축제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리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면은 전반적인 행정 역시 면민들의 주도로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기록을 남겨 공문화시켜 면민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 면장은 "의견 및 건의 사항을 공문화시키는 작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재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시행 결과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면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군인 중심의 소비계층을 지역상권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군 족구대회를 개최 지역의 군과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양 면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민·관·군 족구대회는 마을 이장단을 중심으로 계획해 민 주도의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 2회째 맞는 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이동면의 방위협의회와 번영회는 군 훈련 등 위문에 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군에 전달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양 면장은 "단순한 위문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군인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양 면장은 다양한 경제활성화 아이템을 주민스스로 찾기를 바란다.

"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동장군 축제, 도리돌 한방김치 등의 방향설정 등 다각적인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관에서는 행정적인 노력과 주민들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질적인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방안을 연구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고 면민들의 의식 개혁과 개선을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믿을 수 있는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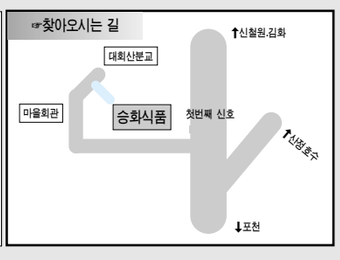
엄마의 손맛, 맛과 영양에 한민족 정서까지!!! 승화식품 에서

Seung Wha Food.Co.

대표이사 김택곤

◆2002.11.11 농업인의날 농산물 가공부문 대상
◆2002.11.24 김치개발 부분 유관상품 동상 수상
◆2003.5.14~18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2003.6.12~15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2003.10 미국 뉴욕식품박람회 참가
◆2004. 5 하이 서울 참가

◆연 혁
1984.3.10 승화식품 설립
1986.6.30 5개 품목 생산
1993.11.12 9개 품목 추가생산
1996.3.30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1996.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1996.6.18 경기도 포천 공장 완공
2000.4.7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본 사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22 TEL : 02-960-6041 FAX : 02-960-1282
포천공장 :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309 TEL : 031-535-6626~7 FAX : 031-535-6626